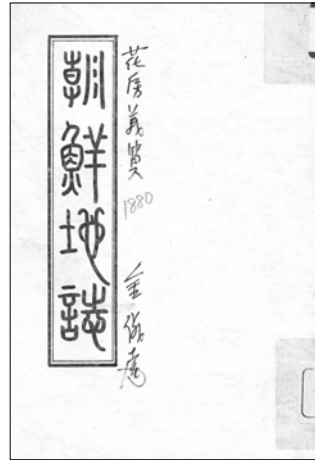


38 朝鮮地誌 조선지지

1880년 / 花房義質(하나부사 야스가스) / 102면 / 14.10-08 판16조 1880

한 말에 우리나라 주재 일본 공사(公使)였던 花房義質(하나부사)가 저술한 102면짜리 책자다. 한지(韓紙)에 일본말로 인쇄한 것이 특징이다. 1880년 2월이니까 한일합병 30년 전에 저작한 것이다.



저자는 ‘山河歷歷(산하력력)’이라는 휘호가 있는가 하면 당시 한양(서울)을 그린 그림사진을 비롯하여 경성도(京城圖), 통진(通津圖), 한성연로촌락도(漢城沿路村落圖), 부산포(釜山浦), 동래부(東來府) 및 원산진도(元山津圖) 등 8개의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또한 권말에는 우리나라 전도를 끼워 놓았다. 한마디로 대단히 공을 들인 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을 판매할 책방 이름을 14개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분포상황이 전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3년 당시 동경대 교수였던 고토분지로(後藤文次郎) 박사가 우리나라 산맥도를 그릴 때 이 책을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인문 지리적인 면이 많으나 역사지리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철원의 경우 “철원 부는 신라의 왕자 태봉(泰封) 궁예(弓裔)가 도읍했던 곳이다. 부(府)는 강원 야음(野邑)에 속하고, 비록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다고는 하나 서쪽은 경기도 장단(長湍) 부와 접경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또 경주의 경우 “경주는 태백산 왼쪽 가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서북을 향하여 국(局)

을 열고 있다. 국 중의 물은 동쪽으로 흘러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른다. 경주 주(州)도 신라 국의 옛 도읍지다. 지금 동경(東京)이라 칭하며 부운을 두고 있는 대도회지다. 지금도 고도(古都)의 칭속(稱俗)이 있다. 또한 부여 현(縣)은 공주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백마강을 끼고 있다. 즉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옛날 유적지가 많다. 또한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잘된다. 따라서 이 지방에는 부호가 많다”는 기록이 있다.

전국군현일람

도별	군현수	인구(명)	가구수
경기	4주 9부 8군 15현	876,696	192,139
충청	4주 1부 11군 38현	988,821	299,899
전라	5주 5부 12군 35현	1,100,113	331,412
경상	4주 11부 13군 40현	1,788,718	465,468
강원	1주 6부 7군 12현	310,303	75,960
함경	1주 15부 4군 2현	494,391	92,020
평안	4주 8부 15군 15현	1,090,912	141,318
황해	2주 5부 8군 10현	488,868	124,997
계	25州 60府 78郡 165縣	7,053,837	1,653,213